

방재특별위원회 발족

—일본 손보험회 내에, 방재에 관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일본 손보험계는 방재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오래전 부터 검토가 진행되어 온 “방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작년 12월 15일 손보험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이 “방재특별위원회”는 방재안전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5월 중에 중간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손보 15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에는 동경해상 전무가 취임하였다.

Risk Management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손보험계가 일치 단결하여 미래의변화에 대응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내외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재특별위원회는 ① 업계 전체로서의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할 방재안전분야에 대하여 ② 업계 전체로서의 방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자세, 수법에 대하여 ③ 이의 실천을 위한 자금 및 인력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검토에 들어가면 이 주제에 구애됨이 없이 방재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사고와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사회환원, 교육, 연수 등 업계로서 조사·연구해야 할 내용들이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방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손보험회장이 지명토록 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업계 전무급으로, 위원은 업계 상무급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실무를 담당키 위하여 “방재특별전문위원회”를 두고 주사(主査)에 동경 해상 안전서비스부장을 선임하였으며 부주사에 차장급 2명, 전문위원에 업계 안전서비스부(또는 안전기술부)의 과·차장을 중심으로 13명이 선임되었다.